

UR농산물협상 최근 동향

곽 노 성

(농림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

UR농산물협상 진척없이 소강상태 유지

농산물협상은 현재는 수면하에서 움직이고 있을 뿐 공식적인 움직임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지난 7월 17일 30개 주요국 대사를 소집하여 개최한 그린룸(Green Room) 회의에서 던켈 사무총장은 금년 상반기 협상에 성과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협상을 다자화 하기보다는 미·EC의 합의만을 기다려온 협상전략이 현명하지 못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9월부터 다시 협상을 다자화, 즉 모든 주요국들의 참여 하에 종전처럼 제네바를 중심으로 하여 협상을 이끌어 나갈 것임을 밝히면서, 각국이 이에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던켈총장의 이러한 판단은 적어도 내년 2월말 미국의 신속처리권한이 만료되기 이전에 협상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을 감안할 때 9월경부터는 협상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나가야 내년초 타결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주위의 정치적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던켈총장으로서의 이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9월 협상개계에 앞서 던켈총장은 8월초부터 중남미 국가를 필두로 주요국 순방에 나섰으며 8월말에는 일본을 방문하고, 9월2일부터 3일간은 우리나라를 방문할 계획이다.

금년말까지 협상타결 미지수

이러한 상황을 볼때, 9월부터 다시 제네바에서 협상이 재개되는 것은 분명하나 실속있는 만남이 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프랑스는 9월 20일 EC통합조약(경제동맹, 정치동맹) 가입을 위한 비준절차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나, 최근 여론이 반대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어 과반수 지지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UR 농산물협상에서 입장을 양보하여 여론을 더 악화시키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도 UR협상이 미국의 요구가 상당수준 반영된 상태로 조기 타결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 대통령 선거 전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지 의심스러운 실정이고, 오히려 UR협상보다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집중 추진하여 8월 12일 타결시켰으며, 선거를 앞둔 부시대통령의 치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9월 협상 재개후에도 협상이 당장 신속하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EC 사이의 견해차가 많이 좁혀져 있고, 신속처리 권한의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각국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